

담양군 '세계대나무박람회' 홍보 팔 걷었다

각국 관련 행사 적극 참여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최형식 군수 대만 '대나무축제' 초청 특별강연도

최형식 담양군수가 대만 시도우 '제12회 대나무문화제'에 특별 초청돼 강연을 통해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홍보에 앞장섰다.

28일 (재)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국립대만공예연구발전센터의 초청으로 최 군수가 지난 23일 대만 시도우 제12회 대나무문화제에 참석해 '담양의 대나무산업과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행진 특별강연에서 대나무 산업과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준비과정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비전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대나무 산업 현황 및 공동협력 방안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담양 대나무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 군수 일행은 이후 국립대만공예발전연구센터와 난터우 죽예박물관, 주산진(竹山鎭) 대나무 문화단지, 그리고 따허 대나무 공방 등 대나무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대나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대만의 대나무



최형식 군수가 지난 23일부터 4일간 대만 난도우현 시도우에서 열린 제12회 대나무 문화 축제에 참가해 특별강연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와 비교를 통해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대만 대나무문화제 관계자는 "대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세계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하는 담

양이 대단하고 부럽다"며 "대만도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나무 예술인들을 참석시키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사단법인 영산강살리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26일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 확장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회의를 하고 있다.

영산강 수질개선 적극 나선다

영산강살리기 운동본부, 배수갑문 공사현장 방문

사단법인 영산강살리기 운동본부(의장 송인호)는 최근 영산강 구조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영산강 수질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지회 임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지난 26일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 확장공사 현장과 영암호 배수갑문 확장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이들 공사가 영산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했다.

영산강살리기 운동본부 측은 영산강 구조개선사업이 수질개

선 명분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통선문을 통한 관광선 및 화물선의 유통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향후 수질관리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인호 공동의장은 "영산강 구조개선 사업이 수질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나 홍수조절과 통선문 확장으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는 기대된다"면서 "향후 수질개선과 관광위락 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연극 '울엄니' 무대 올린다

김진호 나주예총 회장 기획... 오늘·내일 공연

엄마와 딸이 풀어내는 가슴 속 이야기 '울엄니'가 무대에 오른다.

'울엄니'(우리 어머니·사진)는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은 포기한 채 살아온 엄마, 그런 엄마의 삶에 불만이 딸 사이의 갈등과 화해,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사단법인 전문예술극단 '에인방' 이사장이자 나주예총 회장인 연극배우 겸 탤런트 김진호씨가 총기획을, 영화 '마파도' '돈텔마마'의 이상훈 감독이 예술감독을 맡았다. 연출은 예인방 상임연출 송수영씨가 담당했다.

어머니 역은 나주연극협회장을 맡고 있는 임은희씨가, 딸(인정) 역은 예인방 상임단원인 이현정씨가 맡아 감동의 연기를 선사한다.

울엄니는 전남문화예술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김 이사장이 직접 대본을 쓴 창작극이다.

작품 속 엄마는 60~70년대를 힘들게 살아온 우리들의 어머니를 대변한다.

젊었을 때는 늘 자식들이 잘되기를 기도하며 먹은 것 하나라도



더 챙겨줬던 어머니, 늙어서는 자식한테 폐가 될까 홀로 살기를 자처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김진호 이사장은 "'울엄니'는 어머니의 무한한 자식 사랑을 되짚어보고, 우리 어머니가 현재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관객들한테 되묻고 있다"며 "작품에서 엄마와 딸이 풀어내는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와 내가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이야기"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7시, 30일 오후 8시, 7시에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과 만난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 담았어요"

영암 현대대중공업 직원 부인들은 28일 사원아파트 기숙사 식당에서 3200kg의 김장김치를 담아 불우이웃 160여 가구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여의 김장김치를 지역 불우이웃 1000여 가구에 전달했다.

영암 현대대중공업 직원 부인들은 28일 사원아파트 기숙사 식당에서 3200kg의 김장김치를 담아 불우이웃 160여 가구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여의 김장김치를 지역 불우이웃 1000여 가구에 전달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지속 가능한 농촌 교육복지정책 포럼

'글로벌에코포럼-담양' 오늘 추성창의기념관

'글로벌에코포럼-담양'(대표 이만익)이 29일 오후 담양 추성창의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을 주제로 제3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농촌교육복지 실현 방안'을 제1주제로, '농촌의 생태전선성과 연계한 학교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2주제로 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간다.

민승규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기조강연을, 이홍신 청소년교육연구소 소장이 제1주제,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이 제2주제 발표를 각각 맡았다.

한편 '글로벌에코포럼-담양'은 지난 2012년 5월에 창립했으며, 현재 제 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강진장학재단, 내년 460명 장학생 선발

사업비 4억2300만원...면단위 아간공부방 운영비 지원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강진원)이 지난 27일 2013년 제3차 강진군민 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실시할 5개 장학사업의 4억2300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먼저 내년 신설 사업으로 면단위 중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으뜸인재육성사업인 '아간공부방 운영비'로 6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재단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첫 운영된 '좋은 부모 되기 성품대학'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성품대학은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호응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학금 분야에서는 귀농인 자녀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군으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112가구로, 귀농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귀

농인 자녀 가운데 중·고·대학생 각 2명씩 총 6명을 선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사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성적 향상 장학금은 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학급당 1명씩 총 92명을 선발, 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60명이 늘어난 46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강진원 이사장은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정착되면서 최근 사회단체나 향우들이 꾸준히 기탁해 오고 있다"며 "이런 소중한 기탁금들을 지속적으로 모아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들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www.kjhr.com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www.hong79.com

☎ 1899-0240

헤드가능 5개 코너소파 **195만원**

리콜라이너 2개 +헤드가능 3개

5인 이태리 무광대리석 식탁 **195만원**

안틱식탁 15종류